

사회

# 목포해경-中 선원 '서해의 애증'

## 박경조 경위 순직-고무탄 사망 불상사속 19명 태풍 구조에 中총영사 감사 서한도

중국 선원 폭행에 의한 해경대원 순직→조난위기 중국 선원 구조→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고무탄에 중국 선원 사망.

목포해경과 중국 선원 간에 '애증'이 엮여 있다. 지난 2008년 목포해경은 중국선원 폭행으로 박경조 경위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조난 위기에 빠진 중국 선원들을 구조해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불법 어로를 단속하면서 중국인 선원이 해경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처럼 목포해경과 중국 선원간 접촉이 잦은 가장 큰 이유는 목포해경 관할 해역이 황금어장이기 때문. 중국 선단이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는 신안, 영광 등 목포해경이 담당하는 해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조업으로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782척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천·태안·군산·목포·제주·서귀포·울산 등 7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1574척의 절반 가량이다.

뒤를 이어 제주해경 226척, 인천해경 200척, 군산 180척 등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이 가장 많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속에 나선 해경과 이

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과의 사이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9월25일에는 신안군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섰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선에 승선하던 중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18일 제주해양경찰 대원들이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침수사고가 난 말레이시아 선적 화물선 신라인(5436t·SHINLINE)호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단속에 나선 해경이 중국선원에게 맞아 숨지는 최초 사례로 한·중이 EEZ 불법조업 단속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경들의 부상은 계속됐다.

악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달 17일에는 목포해경이 제16호 태풍 '산바'의 북상으로 기상이 악화하자 위험에 처한 340t급 중국 어획물 운반선 절영어운호를 호송해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켜 선원 19명을 구했다.

당시 구조 이틀만인 지난달 19일 텅만인(57) 주 광주 중국총영사가 목포해경을 방문해 직접 감사의 서장에 감사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감

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어선들이 검문시 순응하면 인도적 처원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품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텅 영사는 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7일 중국 선원사망 사건으로 목포해경을 재차 방문해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강 서장은 지난 17일 1차 수사브리핑에 앞서 "중국 선원의 사망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불법으로 무허가 조업시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흥기 中선원 11명 전원 사법처리

### 목포해경

목포해경은 검문검색에 흥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 압송한 중국선적 93t 요단어 23827호(주선) 선원 11명과 23828호(중선) 선장, 기관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선원 장수원(44)씨가 탄 23828호의 선원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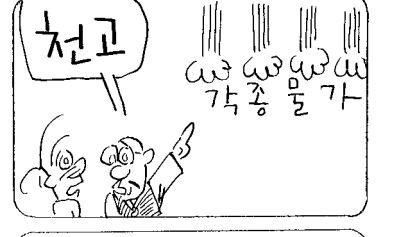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선 선장과 기관장, 선원 1명은 무허가 조업 혐의(EEZ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본원에서 할 예정이던 장수원씨에 대한 부검이 다시 연기됐다.

장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국과수 서울 본원에 도착했으나 장씨가 탄 배의 선장과 함께 조업하던 선원인 장씨의 친척이 부검을 강하게 거부해 부검이 진행되지 못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나원침 (8671) 김종두



### 대낮 아파트 강도

대낮에 주부가 혼자 있는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 A(여·57)씨의 집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 혼자 있는 A씨를 둔기로 위협해 200만원 상당의 반지를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강도와 마주쳐 무서운 마음에 반지 등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 "내가 남편" 만취 여대생 데려가 성폭행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술에 취해 쓰러진 여대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구속.

○18일 서울 중랑경찰에 따르면 전자제품 수리공인 이모(25)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께 서울시 광진구 율동가 골목의 공중화장실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대학생 A(여·20)씨를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남편 친구"라고 속여 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혐의.

○이씨는 모텔 숙박료를 신용카드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1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광주·전남 학생 100명중 13명 '똥보'

### 비만을 매년 증가세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생 100명 가운데 13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의 13%가 비만으로 조사됐다.

비만 학생들은 몸무게가 성별·신장별 표준체중을 초과해 경도·중등도·고도비만으로 분류된 학생들이었다.

광주지역 학생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11년 1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비만율은 2008년 12.7%, 2009년 12.8%,

2010년 13.2%, 2011년 14.2%로 조사됐다.

여학생도 2008년 9.7%, 2009년 9.9%, 2010년 11.1%, 2011년 11.7%로 늘고 있다.

전남도 2008년 11%에서 2010년 13.5%, 2011년 12.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 비만율은 2008년 13.7%, 2009년 13%, 2010년 14.7%, 2011년 13.6%며, 여학생 비만율도 2008년 8.3%, 2009년 10.6%, 2010년 11.9%, 2011년 12.2%로 증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고칼로리 음식 다량섭취,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학생 비만이 늘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비만치료와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거액 횡령 여수시청·완도군청 압수수색

최근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거액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라 감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역 해남지청은 18일 완도군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완도군 공무원 A(여·37)씨가 2년여간 공금 5억원을 빼들었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완도군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해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 직원 소득세 등을

빼들린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15일 여수시청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억원대 공금을 빼들린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B(47)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이체하는 업무를 하다가 세금 일부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해경단정 전복 외국선원 5명 사망

### 제주 해상서 말레이시아 화물선 구조중

제주 해상에서 침수된 외국 화물선 선원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 단정이 외국인 선원들을 태우고 나오다 전복, 선원 5명이 숨졌다.

18일 낮 12시 26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27.7km 해상에서 선체에 구멍이 뚫려 침수 사고가 난 말레이시아 선적 화물선 신라인(5436t·SHIN-LINE)호의 선원들 태운 제주해경 단

정이 높은 파도로 전복됐다.

단정에는 선원 11명과 해경 대원 6명 등 모두 17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왕신레이(41)씨 등 중국인 선원 2명과 헨리 모라다(35)씨 등 필리핀인 선원 3명이 숨졌다. 해경 김철우(28) 순경은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단정 승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사고 당시 외부로 나온 11명은 다행히 구조됐다. 그러나 배가 뒤집히며 안에 갇혔던 선원 5명은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했다.

해경 방석세(33) 경사는 사고 상황에 대해 "단정이 너울성 파도 정점에 올랐을 때 강한 파도가 배의 우현을 강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집혔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단정은 길이 10m, 폭 3.3m, 높이 1.2m 크기다. 제주해경 조준영 서장은 브리핑에서 "단정이 4~5t 규모로, 80kg 성인 10~11명 정도를 적정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15분께 차귀도 서쪽 61km 해상에서 '신라인' 화물선에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새는 사고가 났다며 제주해경에 배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사고 화물선은 스틸코일 4472t과 기계 설비 2100t을 싣고 부산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해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13명과 필리핀인 6명 등 선원 19명이 타고 있었다. 화물선은 오후 3시50분께 침몰했다. /연합뉴스

국내개발 | 국내생산 | 특허 제 10-1171252호

www.soriq.co.kr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TV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강의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학·상담할 때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 18(목)~10. 20(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소리큐 홍보대사 송해선생님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총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67기비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차안내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